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교회연합주일 : 오늘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는 교회연합주일입니다.

동호회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교육부회의 : 오늘 12:20분 유치부실에서 교육부회의가 있습니다.

수요저녁성서연구 : 지난주부터 수요저녁 성서연구 가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전체를 공부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판매 : 영월 동강 친환경 포도 추가 예약 받습니다. 홍천 친환경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자리 : 앞쪽 자리부터, 의자 끝자리가 아니라 중간부터 앉아주세요.

신앙실천 :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인사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잠 31:10-31 / 시 1	2부	히 5:7-10
예배	약 3:13-4:3 / 막 9:30-37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권정연 조장형 한상균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권 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유아부, 중고등부)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에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제16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고도 맑은 가을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작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가을, 날마다 주님의 얼굴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도 맑고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 떠돌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국제사회가 나라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그들을 가족처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 교 독 문 6. 시편 10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263. 이 세상 험하고 다 함께
- ♣ 성경봉독 I. 잠1:20-33 약3:1-12 막8:27-38 정윤성 선생
 II. 레 19:33,34 정현모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대
- 말 씬 I. 지혜가 부르고 있다 김재흥 목사
 II. 나그네와 더불어 살기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미숙 김광일 이부용 김도현 김성한 조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정화 김주희 김중수 이순정 문복순 박기영
 박미연 박시내 박예림 박용철 김윤정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안현숙 오미숙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이미휘 이범석
 류정옥 이에서 이우상 이계월 이우원 옥귀희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치림
 강상연 이한림 김명희 임호성 전인섭 정두리 정재기 정종삼 조관행 홍선희
 조지연 주은경 최지현 최철수 곽권희 한상경 허준호 무명1

감사헌금

김 극 김명하 김성욱 진혜정 김애경 김영아 김용길 김재욱 진은정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박용철 김윤정 박재영 이현정 안정준 오형일 이광재 이범석
 류정옥 이은혜 장동열 최윤주 장미경 정진호 조순덕 황현성 이오복 무명14

생일감사헌금

김정근 오현정

녹색꿈헌금

강미선 주현철 김진선 김재환 박영희 무명1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에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박영희	오유경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이재문	이은옥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곽혜자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안정숙	김태정
시온	권미숙	박미영	박미영	권미숙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유금주	강순배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윤수진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야외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홍춘숙	김희우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심상숙	김민화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미니 시리즈

느닷없이 접촉사고
 느닷없이 삼각관계
 느닷없이 시기질투
 느닷없이 풍전등화
 느닷없이 수호천사
 느닷없이 재벌2세
 느닷없이 신데렐라
 느닷없이 승승장구
 느닷없이 이복형제
 느닷없이 행방불명
 느닷없이 폐암진단
 느닷없이 양심고백
 느닷없이 눈물바다
 느닷없이 무사귀환
 느닷없이 갈등해소
 느닷없이 해피엔딩

16부작이 끝났습니다
 꿈 껴 시간입니다

- 오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	------------------------------------

찬 양	장성호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낯선 이를 환대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다 함께:	아멘. 친분 있는 이들과의 편안한 삶을 원할 뿐 낯선 이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영원히 계신 이는 하나님뿐 우리는 모두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낯선 이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동 호 회 / 각 동교회별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하현철 장로	하진술 선생 허신열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송동준 강세기 이소애 서정순 한양미
	헌금위원	김정민 김금순

믿음으로 읽는 글

찬미를 받으소서(Laudato Si')

찬미를 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깔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롬 8:22)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창2:7)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

“우리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피조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됩니다.”(베네딕토 16세)

...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생태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

의 수호성인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하셨고, 또한 그 기쁨, 관대한 헌신, 열린 마음으로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사셨던 신비주의자이시며 순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해와 달과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시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욱 커다란 측은지심에 찬 성인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기에 순진한 낭만주의로 폄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경탄과 경이에 열려 있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우애와 아름다움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지배자, 소비자, 무자비한 착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냉철함과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과 검소는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곧 현실을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2015.6.18.발표) 중에서